

## No.23 - 추가 - 호마

자오도에서는 매일 '호마(護摩)'라고 불리는 의식이 행해집니다. 호마 의식에서는 승려가 부처님 앞에서 청정한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호마목이라는 사람들의 소원을 적은 가느다란 판을 던져 넣어 태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소원이 부처님께 전해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오도의 호마는 경전을 외는 소리 뿐만 아니라, 소라고둥으로 만든 법라나 북소리도 함께 들리는 슈겐도 특유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